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우울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박정숙¹, 이지현^{2*}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²한국국제대학 간호학과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Depress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ung-Suk Park¹, Ji-Hyeon Lee^{2*}

¹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우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간호 대학생 208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이 경험하는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의 평균평점 3.74점이며, 우울은 4점 만점의 평균평점이 2.36점이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평균평점 2.88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 ($p=0.002$), 나이 ($p=0.048$), 학년 ($p=0.001$), 대학만족도 ($p<0.001$), 전공만족도 ($p=0.002$), 희망진로 ($p=0.002$), 실습만족도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r=-0.17$, $p=0.016$), 우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37$, $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울, 실습 만족도, 학년, 성별이었고, 전체 26.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간호 대학생의 임상 실습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targeted 208 nursing college seniors in B city who have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30 2017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e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average score of communication skills was 3.73, the score of depression was 2.36, and the scor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2.88.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ending on gender ($p=0.002$), age ($p=0.048$), grade ($p=0.001$),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p<0.001$), satisfaction with major ($p=0.002$), desired course ($p=0.002$),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p<0.001$).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communication skills ($r=-0.17$, $p=0.016$) and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r=0.37$, $p<0.001$).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rade, sex and religion had a high explanation rate of 26.9%, indicating that they were meaningful variables that influenced clinical practice stress. Overall, to decrease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prevent and mitigate depression and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Keywords : Communication skills, Depression,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s

본 연구는 2017년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비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Hyeon Lee(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el: +82-51-990-2114 email: ljh6298@hanmail.net

Received July 13, 2019

Revised (1st August 10, 2018, 2nd August 23,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은 실천적 학문인 간호학의 특성상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준비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1]으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은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전공강의의 수장은 물론, 취득 학점의 상당부분을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엄격한 교육과정[2]으로 공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실습을 하면서는 의식주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 낯선 실습지에서의 환경적응과 학습목표 달성에 대해 부담감이 가중되어 타 대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보다 높다[3].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임상실습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실습생으로서 역할의 모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며 역할수행 중 무능감, 임상실무 및 실습과정의 과중함, 실습평가의 압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도를 낮출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며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6]. 또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과 임상실습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2]. Park와 Jung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우울이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의사소통 기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으로[8],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타인을 비롯한 유기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에 기본적인 수단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다[9]. 특히 간호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더욱 중요한데, 간호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인기 초기에 요구되는 대인관계 능력뿐 아니라, 간호 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0].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연령 및 사회계층의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다시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고 하였다[11].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12], 우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며[1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15],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6],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17]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는 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보았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우울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우울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우울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우울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우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의사소통능력과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대학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이해하여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이 주된 분석방법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위한 독립변수와 사례수의 비율은 약 1:20정도가 되어야 함으로[18],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 10개를 넣어 계산하여 적정 표본크기는 200명이나 탈락률 10%정도를 고려하여 220명을 배부하여 215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14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우울 20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24문항으로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Rubin, Palmgreen과 Sypher [19]가 개발한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를 Hur[20]가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15개의 핵심 하부차원(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적,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과, 반응력, 잠음 통제력)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2.3.2 우울 측정도구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1977)가 제작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을 Chon 과 Lee[21]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본 측정도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긍정문항 4개, 부정문항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n 과 Lee[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3.3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eck Srivastva[22]가 개발하였고 Kim 과 Lee[19]이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 Lee[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전에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B시 소재 4개의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정보수집과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법에 의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의사소통능력,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는 각각 평균, 평균편차,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와 Sceft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176명(84.6%), 나이는 22살 이상이 164명(78.8%), 학년은 3학년이 119명(57.2%), 종교는 없음이 139명(66.8%), 대학만족도는 만족이 95명(45.7%), 친구관계는 좋음이 166명(79.8%),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11명(53.4%), 지원동기는 취업률

이 67명(32.2%), 학교 성적은 중위권이 95명(45.7%). 희망진로는 병원취업이 180명(86.5%), 부속병원이 없음이 196명(95.2%), 실습만족도는 보통이 135명(47.6%), 가정생활은 보통이 135명(64.9%), 거주형태는 자가 137명(6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Clinical practice stress.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2	15.4	2.58±0.57	-3.22	.002	
	Female	176	84.6	2.93±0.60			
Age	≤22	164	78.8	2.92±0.61	2.01	.048	
	>22	44	21.2	2.72±0.58			
Grade	3rd	119	57.2	2.79±0.59	-2.54	.001	
	4rd	89	42.8	3.00±0.61			
Religion	Yes	69	33.2	2.86±0.58	-0.41	.684	
	No	139	66.8	2.89±0.62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ied	95	45.7	2.71±0.70	9.98	<.001	a<b,c
	Average	80	38.5	2.95±0.48			
	Dissatisfied	33	15.8	3.21±0.46			
Practical relationships with peers	Good	166	79.8	2.84±0.64	2.13	.122	
	Average	40	19.2	3.01±0.39			
	Poor	2	1	3.44±0.09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111	53.4	2.79±0.68	6.22	.002	a,b<c
	Average	78	37.5	2.91±0.45			
	Dissatisfied	19	9.1	3.30±0.56			
Motives for selecting nursing	High school grade	5	2.4	3.07±0.47	1.32	.275	
	Encouragement of parents or pitch from nursing	49	23.6	2.86±0.67			
	Employment guarantee	67	32.2	2.99±0.44			
	Aptitude and hobbies	53	25.5	2.86±0.69			
	Professional	29	13.9	2.74±0.67			
Others	5	2.4	2.48±0.37				
School grades	High	34	16.3	2.94±0.55	0.48	.622	
	Moderate	95	45.7	2.84±0.68			
Desired course	Low	79	38	2.90±0.54	4.50	.002	a,c,e<b
	Hospital employment	180	86.5	2.84±0.59			
	Advance	3	1.4	4.22±0.68			
	Health teacher	5	2.4	2.74±0.37			
	Industry nurse	3	1.4	3.07±0.54			
	Nursing officer	17	8.2	3.02±0.56			
Traing in hospital	Yes	8	3.8	2.89±0.60	0.86	.394	
	No	198	95.2	2.70±0.8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92	44.2	2.64±0.65	16.10	<.001	a<b,c
	Average	99	47.6	3.03±0.47			
	Dissatisfied	17	8.2	3.27±0.60			
Economic status	Lower	23	11.1	3.03±0.57	0.80	.450	
	Medium	135	64.9	2.86±0.56			
	Upper	50	24	2.86±0.73			
Residence type	My home	137	65.9	2.85±0.53	1.90	.153	
	Dormitory	26	12.5	3.09±0.68			
	Trace	45	21.6	2.84±0.75			

3.2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우울, 임상 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평점 3.74±0.49 (척도 범위: 1-5)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 나타났고, 우울 정도는 평균평점이 2.36±0.51 (척도범위: 1-4)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88±0.61(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t=-3.22, p=.002$), 나이($t=2.01, p=.048$), 학년($t=-2.54, p=.012$), 대학만족도($F=9.98, p<.001$), 전공만족도($F=6.22, p=.002$), 희망진로($F=4.50, p=.002$), 실습만족도는 ($F=16.1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우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r=-.17, p=.016$), 대상자의 우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7, p<.001$)(Table 3).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과 우울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보인 성별, 나이, 학년,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희망진로, 실습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이 중 명목변수인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희망진로, 실습만족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2.51, p<.001$),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928~0.985로 0.1이상을 보였고, 분산팽창인자(VIF)는 모두 1.015~1.077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7로 오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beta=0.29$)이었고, 실습 만족도($\beta=-0.29$), 학년($\beta=-0.19$), 성별($\beta=-0.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6.9%였다(Table 4).

Table 2. Degree of Communication skills, Depression, Clinical practice stress. (N=208)

Categories	Items	min-max	M ± SD	Range
Communication skills	15	34~75	3.74±0.49	1-5
Depression	20	24~72	2.36±0.51	1-4
Clinical practice stress.	24	24~120	2.88±0.61	1-5

Table 3. Correlations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for Communication skills and Depression (N=208)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r (p)		r (p)
Communication skill	-.17 [*] (.016)		
Depression	.37 ^{**} (.000)		-.49 ^{**} (.000)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N=208)

Variables	R	Adj.R ²	B	SD	β	t	p	Collinearity	
								Tolerance	VIF
Depression	.369	.132	.345	.073	.292	4.708	<.001	0.937	1.067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473	.223	-.348	.075	-.286	-4.662	<.001	0.956	1.046
Grade	.504	.254	-.232	.074	-.190	-3.146	.002	0.985	1.015
Gender	.519	.269	-.216	.104	-.129	-2.072	.040	0.928	1.077

F=32.509, p<.001, Durbin-Watson 2.170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5.0점 만점에 3.74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같은 도구로 측정된 Lim과 Jo[24]의 연구결과 3.67와 유사하고, Yang[16]의 연구결과 3.5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및 임상실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며 환자와의 치료적인 관계유지, 보호자에게 간호지식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에 이용될 수 있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강의식의 전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학습에 참여하는 역할극이나 시뮬레이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결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평균 4.0만점에 2.3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된 Sin[25]의 연구결과 1.99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도구이지만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측정된 Lee[26]의 연구결과 1.38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우울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건강문제 중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우울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없을 경우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거나 의욕상실로 이어져 학업을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대학교의 교육 개혁이 유능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27].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교육뿐 만 아니라 따라서 학생과의 상담이나 지도 시에 학업과 진로문제 뿐 만 아니라 우울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5.0점 만점에 2.88점으로 중간정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된 Kim과 Jeong[28]의 연구결과 3.11으로 조금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Park과 Oh[29]의 연구결과 2.80점, Kang와 Lee[30]의 연구결과 2.90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수와 도구의 상이성으로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이상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이 여자이거나, 학년이 4학년이거나, 대학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일수록, 희망진로가 진학일수록, 실습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Yang, Han, Bae, Yang[31]의 연구에서 실습만족도가 불만족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간호에 대한 전문직관과 진로 영역의 다양함을 강화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면 실습이 긍정적으로 이어지리라 사료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과제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r=-.17, p=.0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Gu[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 대학생에게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r=.3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Lim, Choi[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 대학생에게 우울을 관리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고, 그 다음으로 임상 실습 만족도, 학년, 성별 순이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스트레스를 26.9% ($F=32.51, p<.001$) 설명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불안, 피로 등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실습 경험 및 소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우울 및 의사소통 관리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재 개발 시 간호대학생의 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상실습 전 실습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임상환경에 친숙해지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연계성 이해를 위한 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년과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의 차별화를 고려하고, 간호대학생의 실습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우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 나이, 학년, 대학 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진로, 실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실습 만족도, 학년, 성별이었으며, 전체 26.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의사소통능력, 우울, 임상실습스트레스 규명된 선행연구에서의 변수들을 포함시켜 통합적 관계의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년에 따른 비교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개념들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깊이 있고 통합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V. Venkatesh, M. G. Morris, G. B. Davis, F. D. Davis,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Vol.27, No.3, pp.425-478, 2003.
DOI: <https://dx.doi.org/10.2307/30036540>
- [2] J. S. Yoo, Y. J. Jang, E. K. Choi, &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2008.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3]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 No.2, pp.177-185, 2013.
DOI: <https://dx.doi.org/10.14370/jewnr.2013.19.2.177>
- [4]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2, pp.216-225, 2011.
DOI: <https://dx.doi.org/10.1111/jkana.2011.17.2.216>
- [5] A. K. Lee, J. Y. Yeo, S. W. Jung, S. S. Byun, "Relation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Job-stress and Job-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2, pp.299-308, 2013.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3.13.12.299>
- [6]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 - Efficacy, and Self -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205-213, 2006.
- [7]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14-23, 2010.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8] M. H. Han, G. H. Lee, "A comparison of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measur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Vol.23, No.1, pp.16-26, 2017.
- [9] W. R. Cupach, B. H. Spitzberg "Trait versus state: A comparison of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measur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Vol.47, No.4, pp.364-379, 1983.
DOI: <https://dx.doi.org/10.1080/10570318309374131>
- [10] J. W. Park, M. S. Choi,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3, pp.351-360, 2009.
- [11]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4, pp.2593-2601,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4.2593>
- [12] S. H.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10, pp.379-390, 2001.
- [13] Y. H. Kim, K. J. Lee, S. J. Yu, et al, “Psychiatric nursing”, Sumunsa, Seoul 2001.
- [14] S. H. Jeong, S. H. Park,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16, No.1, pp.47-54, 2013.
DOI: <https://dx.doi.org/10.7587/kjrehn.2013.47>
- [15] S. Y. Kim, S. Y. Lim, H. 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 No.4, pp.59-64, 2015.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15.1.4.59>
- [16] S. Y.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9, pp.286-296, 2016.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6.16.09.286>
- [17] S. J. Shin, M. 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7, No.5, pp.441-455, 2016.
- [18] B. G. Tabachnick, L. S. Fidell,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2007.
- [19] R. B. Rubin, P. Palmgreen and Sypher H. E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 a sourcebookK.” NY: Guilford Press. 1994.
- [20]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380-408, 2008.
- [21] K. K. Chon, M. K. Lee.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1, No.1, pp.65-76. 1992.
- [22] D. L. Beck, R. Srivast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pp.127-133. 1991.
- [23]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 No.4, pp.98-106, 2005.
- [24] E. J. Jo, K. M. Lim,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mmunication skills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6, pp.618-628,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6.618>
- [25] S. H. Sin,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14-24, 2016.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6.22.1.14>
- [26] H. I. Le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8, No.2, pp.109-118, 2010.
- [27] Y. J. Tung, K. K. H. Lo, R. C. M. Ho, W. S. W. Tam,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Vol.63, pp.119-129, 2018.
DOI: <https://dx.doi.org/10.1016/j.nedt.2018.01.009>
- [28] Y, J. Kim, I, J. Jeong,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2, No.3, pp.297-308, 2018.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4.12.3.297>
- [29]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417-426, 2014.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30] M. A. Kang, S, K. Le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452-461, 2016.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6.22.4.452>
- [31]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 [32]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749-2759, 2013.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33] S, Y. Kim, S. Y. Lim, H. 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 No.4, pp.59-64, 2015.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15.1.4.59>

박 정 숙 (Jeong-Suk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노인간호

이 지 현(Ji-hyeon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9월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
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